

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(막2:18~22)

(18)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

(19)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

(20)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

(21)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

(22)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포도주가 부대를 터트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

1. 두 무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따집니다. 그러자 예수님은 혼인집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.

(1)혼인집 손님들이 (2)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
그러나 (3)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

위의 말씀에서 (1),(2),(3)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?

2.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(21,22) 헌 옷에 헤어진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 새 천을 대고 기우면 그것이 헌 옷의 천을 끌어당겨 오히려 옷을 더 망치게 됩니다. 포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

3.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.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요? 예수님의 새 복음을 받을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?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~.